

에이스 유창식 등 광주·전남 출신 6명 맹활약

한국, 세계청소년야구 8강 확정

예선 4차전 강호 쿠바 5-3 제압

한국 청소년 야구가 제24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강호 쿠바를 격파하고 대회 3연패 희망을 키웠다.

특히 청소년야구 대표팀에는 에이스 유창식(광주일고)과 비롯 내야수 강경학(동성고)·박세웅(광주일고)·허일(광주일고), 외야수 문우람(동성고)·정진기(화순고) 등 광주·전남고교생 6명이 포진, 투·타에서 팀을 이끌고 있다.

최재호(신일고)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선더베이 포트아스터디움에서 열린 B조 예선 4차전에서 쿠바를 5-3으로 꺾었다.

A조 각 6팀 가운데 4위까지 결승토너먼트에 나설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승(1패)째를 거두면서 파나마와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특히 강호 쿠바를 격파하면서 조 2위를 확보, 8강에서 미국, 대만 등 A조 강호와 맞붙는 대진도 피했다.

한국과 쿠바, 캐나다가 각각 파나마, 네덜란드, 채코 등 B조 악제팀과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세 팀은 서로 승패를 주고받아 4승1패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된다.

이 경우 국제야구연맹(IBAF)은 세 팀끼리 맞붙는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실점'을 고려한 팀 성적 지표'를 산출해 순위를 가린다.

캐나다와 쿠바와 맞붙은 두 경기에서 9득점, 8실점을 기록한 한국은 쿠바(6득점, 5실점)와 접수가 같으나 자책점에서 뒤져 2위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선더베이 포트아스터디움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B조 예선 4차전 쿠바와 경기에서 한국의 허일(광주일고)이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오르고 캐나다(5득점, 7실점)는 3위로 차진다. 다만 캐나다는 남은 파나마와 체코 경기에서 진다면 한국은 승자승 원칙에 따라 쿠바를 누르고 기적적으로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한국은 선발투수 최현진(충암고)이 2회와 4회 각각 솔로 홈런을 얻어맞아 0-2로 끌려가며 어렵게 출발했다. 그러나 쿠바의 불안한 수비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행운의 역전승을 일궈냈다. 5회초 9회초 1사 1.3루에서 다시 쿠바 투수가 보크를 저지하면서 1점을 보태 승리를 확정지었다.

대표팀 에이스 유창식(광주일고)은 3-2로 맞선 5회말 등판해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한국은 29일 같은 장소에서 파나마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의 랑볼과 정진기(화순고)의 중장안타로 3점을 뽑아내 단숨에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5회말 1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지만 6회초 다시 상대 실책을 틀타 1점을 달아냈고, 9회초 1사 1.3루에서 다시 쿠바 투수가 보크를 저지하면서 1점을 보태 승리를 확정지었다.

대표팀 에이스 유창식(광주일고)은 3-2로 맞선 5회말 등판해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한국은 29일 같은 장소에서 파나마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효과' 기대 만발

27일 롯데 복귀전, 짜릿한 '역전 투런포' 작렬

KIA 원정 12연패 탈출…무기력 타선에 활기

2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기아 경기에서 기아 김상현이 2대3으로 뒤진 8회초 무사 1루 상황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넘게 심각한 부진을 겪었던 지난 해 한국시리즈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지난 27일 롯데와 경기에서는 모처럼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시즌 개막 후에도 페이스를 찾지 못해 타율은 2할대 초반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 5월11일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고 6월 10일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오른쪽 팔복

을 다친 탓에 6월26일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김상현이 타선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팀 타율 7위(0.257)의 KIA 타선은 고꾸라졌다. 팀 성적도 16연패에 이어 최근 다시 5연패를 겪는 등 주락했다.

그런데 KIA는 패색이 짙던 8회초 역전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다. 2점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한 뒤 밀어내기로 2점을 더 뽑아 승리를 따냈다.

극적으로 역전 홈런을 때리면서 KIA의 타선에 혜력을 불어 넣은 주인공은 바로 이날 부상에서 복귀한 김상현(30)이었다.

지난 시즌 홈런(36개), 타점(127개) 2관왕을 차지하면서 KIA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김상현은 올해는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떨어지지 못했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고질인 원쪽 무릎

통증이 도져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시범경기에서도 초반에는 출장 조차하지 못했다.

시즌 개막 후에도 페이스를 찾지 못해 타율은 2할대 초반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 5월11일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고 6월 10일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오른쪽 팔복

을 다친 탓에 6월26일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김상현이 타선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팀 타율 7위(0.257)의 KIA 타선은 고꾸라졌다. 팀 성적도 16연패에 이어 최근 다시 5연패를 겪는 등 주락했다.

하지만 김상현이 돌아오자 타선의 무게감이 확 달라졌다. 27일에는 평소 치던 5번이 아닌 6번 타순에 배치됐지만 이날 타선의 핵은 김상현이었다.

김상현이 없는 사이 외롭게 타선을 이끌던 최희섭이 이날은 삼진 3개를 당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김상현은 0-3으로 뒤집어 4회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으면서 복귀를 알렸고, 8회에는 역전 홈런까지 날리는 등 5타수 2안타에 3타점을 거뒀다.

김상현이 화려한 복귀식을 치르자 4위 싸움으로 바쁜 KIA 벤치는 기대감을 갖추지 않고 있다. 김상현이 페이스를 되찾아 중심타선에 포진된다면 4번 최희섭

과 함께 이른바 'CK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희섭은 지난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5개의 결승타를 때렸고 김상현은 13개로 뒤를 이으면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

김상현은 경기 후 "TV로 팀의 연패를 지켜보면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번 홈런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최희섭은 올해 타율 0.302에 홈런 15개, 타점 61개를 올리며 고군분투했다. 타율 0.209에 홈런 9개, 타점 27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김상현이 이제 남은 경기에서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최희섭과 쌍포를 가능한다면 4강 도약을 노리는 6위 KIA는 순위싸움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추신수, 복귀 후 첫 3안타 폭발

3할대 타율 재진입 눈 앞

박찬호 10이닝 무실점 호투

추신수(28·클리블랜드 앤디언스)가 오른손 암지 부상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안타 3개를 빼내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 아메리칸리그 최다승(13승) 투수 C.C. 사바시아를 상대로 4타수 3안타를 때렸다.

한편 박찬호는 1~4회 승부가 기운 8회 등판, 10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지만 삼진 1개를 끌면서 별탈타로 요리해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다.

그러나 기대했던 추신수와 한국인 투·타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고 박찬호의 평균자책점은 5.57에서 5.40으로 떨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청소년볼링 여자 2인조

한국 볼링 청소년 대표팀의 김연주(단국대)와 김문정(곡성군청)이 2010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 여자 2인조 부문에서 동메달을 땄다.

김연주와 김문정은 대회 셋째 날인 28일(한국 시간) 페인드 헬싱키에서 열린 여자부 2인조 결선에서 414점을 합작해 콜롬비아(481점), 싱가포르(473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들은 6개임으로 치러지는 예선에서

총점 2천663점을 평균 221.9점을)을 기록하며 1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 준결승에서 2위팀인 싱가포르에 떨미를 잡혀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현재까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7월 31일(목)

체육관 출발(7:00 광주역 광장 경유) ■ 다음카페: 광주한국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

광주일고 하키 전국 정상 장관기 결승, 경기 이매고 2-1 꺾어

광주일고가 전국 하기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광주일고 하기팀은 지난 27일 조선대학교 하기경기장에서 열린 제21회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기대회 결승전에서 경기 이매고를 2-1로 물리쳤다.

이로써 광주일고는 이번 대회에서 고

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8월 3일(화)

만화스토리 출발(7:00 광주역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34-0776

■ 8월 4일(수)

▲ 청도 우리 산악회 경남 신령 산등성이 8월3일(화) 7시40분 구

7시 40분 염주체육관, 7:5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27-2113, 010-5038-9001

■ 8월 5일(목)

▲ 청도 우리 산악회 고성 바도산 수월산 소득도 경유 8월8일(일)

7시 30분 출발(7:30 바도체육관, 8:0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27-2113, 010-5038-9001

■ 8월 6일(금)

▲ 청도 우리 산악회 경북 낭월리 해수욕장 8월7일(토)

7시 30분 출발(7:30 낭월리 해수욕장, 8:0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27-2113, 010-5038-9001

■ 8월 7일(토)

▲ 청도 우리 산악회 경북 낭월리 해수욕장 8월8일(일)

7시 30분 출발(7:30 낭월리 해수욕장, 8:0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27-2113, 010-5038-9001

■ 8월 8일(일)

▲ 청도 우리 산악회 경북 낭월리 해수욕장 8월9일(월)

7시 30분 출발(7:30 낭월리 해수욕장, 8:0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

회(※우리산악회는 몸주가두를 하지 않습니다.) T.011-627-2113, 010-5038-9001

■ 8월 9일(월)

▲ 청도 우리 산악회 경북 낭월리 해수욕장 8월10일(화)

7시 30분 출발(7:30 낭월리 해수욕장, 8:00 고원공제 회관앞, 문예회관 후문, 예회관후문 경유) ■ 다음카페: 광주신라